

01 교회소식

새로운 비전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이뤄갈 우리 교회 2020년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겨 본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의 공의에는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03 사랑의 메시지

마음에서 찾는 성공의 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중한 꿈과 비전을 마음껏 이뤄내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

04 간증

봉사는 은혜의 통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할 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달란트로 봉사하는 이들의 행복한 간증.

# 만민뉴스

제912호 2020년 1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 대망의 2020년 우리 교회 4대 비전 발표



2019년 12월 29일, 주일 저녁예배 직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사무연회가 열렸다.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해 2020년,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이뤄갈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발표하였다.

#### 비전1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사 60:1~3)

하나님께서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제단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지금까지 방송 선교와 문서 선교로 성결의 복음을 전했으며 해외 연합대성회, 부흥성회, 수련회 등을 통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이후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이겨냄으로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는 제단이 될 것이다. 성결의 말씀과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비출 때에 열방과 열왕들이 만민의 빛으로 나아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이다.

#### 비전2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통해 최상의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데, 그 최상의 열매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성도이다. 불순물을 빼낸 순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참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참마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때로는 시험과 연단 속에 마음의 악이 드러나기도 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로 고난도 겪지만 그럴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활레하여 믿음을 키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따라서 힘써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명백한 악은 물론, 스스로는 깨닫기 어려운 양심과 본성 속의 악까지도 남김없이 뽑아냄으로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참 열매로 나와야겠다.

#### 비전3 사랑이 가득한 성전(요일 4:11~12 ; 고전 12:12)

대성전 건축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계획해 명하신 것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뤄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의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성도 간에 따뜻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대성전 건축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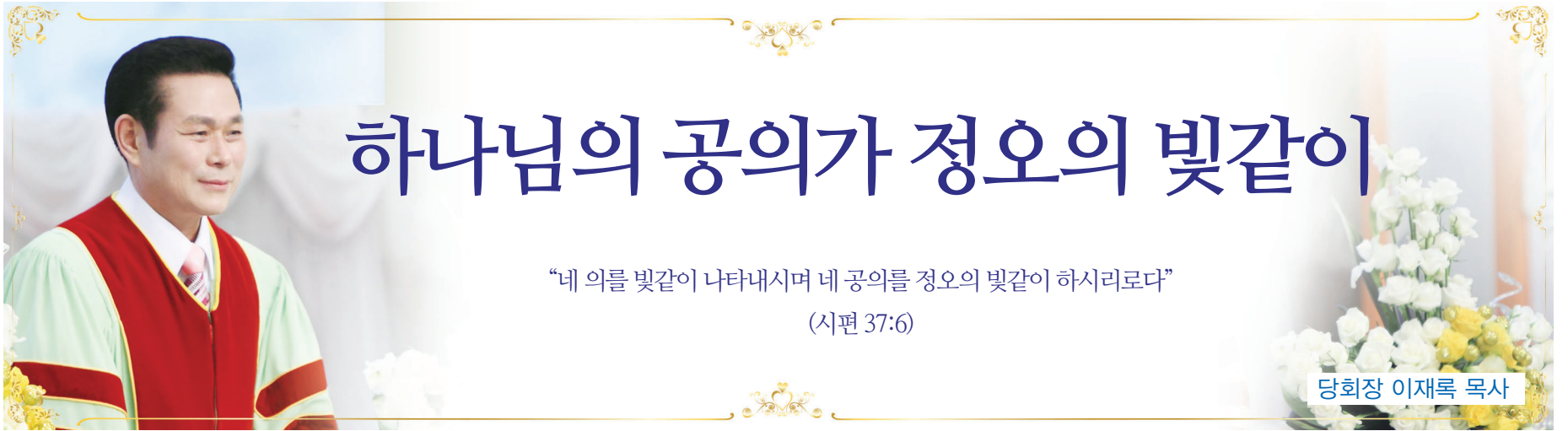
#### 비전4 재창조의 권능 100프로(겔 37:4~10)

재창조의 역사는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말한다. 재창조의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을 눈에 본 듯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재창조의 권능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성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크신 섭리 가운데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이뤄질 그날까지 만민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6)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영계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유일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역사해 가지지요.

그리고 이 법칙들 중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씀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고 계실까요?

## 1.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사랑과 공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선악 간에 공평하게 상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율법 곧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공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만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니 사랑과 공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라야 참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의의 기본 원칙은 간단히 말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 말과 행동 하나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는 어떠한 것이든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되고,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였고,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말씀은 곧 죄를 심으면 사망으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사망이라는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 16:18)이라고 하셨으니 교만한 사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편벽됨이 없이 공평할 뿐 아니라 정확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그 판단이 정확하지요(잠 16:2).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며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가 없으며 이 땅에서든 아니면 심판 날에 가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2. 공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혹여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무섭다고 느낀다면, 이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공의에 따른 징계가 두렵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을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혹시 어딘가에 경찰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지요.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요(전 12:14 ; 히 11:6).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한 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주어지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한 만큼 반드시 선과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공의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공의 가운데 받는 징계나 연단도 결국은 나를 온전케 만들고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임을 깨달아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잠 3:12 ; 히 12:8).

## 3.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 다윗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인해 밋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징계와 함께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고, 셋째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까지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 죄성을 완전히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탁월한 연단과 징계를 막지 않으셨지요.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악한 시므이나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고자 했던 압살롬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령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축복으로 임하지만,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오수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는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의 판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전 12:14 ; 갈 6:9).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선과 진리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 4. 공의를 정오의 빛에 비유하신 이유

정오의 빛은 하루 중에 가장 밝히 비추는 빛입니다. 깊은 산 속에 있다 해도,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있다 해도 중천에 떠 있는 태양에서 발하는 정오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밝히 빛나므로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으며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 “...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장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정오의 빛같이 밝히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공의를 어긴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40년간의 연단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닦은 지도자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생활 동안에 수많은 불순종과 원망, 불평을 하며 때로는 대적해 오기도 하는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으셨지요.

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함으로 공의를 굽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 또 백성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고, 다시금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랑으로 역사하신 것이었지요.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라는 말씀대로 공의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더욱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봅시다

## 성공을 이루는 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새해의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달마다, 주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날그날 계획도 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변개함 없이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했다면 그 이루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곧 변개하는 마음, 그 속성 때문이지요.  
혹여 ‘다음 달에는 꼭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해 나가지만  
또 다시 계획에서 빗나간다면 또 다시 다짐하고 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나가는 것이지요.  
즉 자신의 문제점을 계속 시정하면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조절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지요.  
그때는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키워 가면, 내가 계획한 만큼 성취하고 이루었다 한다면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나 가면  
주 안에서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항상 반성하며  
이루지 못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버려 나가면 그만큼 발전하고  
주 안에서 마음먹은 것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언 4:23)

2018년 3월 31일, 주일 아침 2성전  
당회장님 성도 만남 시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교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01 박지민 집사**  
(5청년선교회)

저는 본당 방송실에서 대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과 설교를 GCN방송 홈페이지(www.gcntv.org)에 올리기 위해 자막을 다시 입히거나 예배 녹화와 설교 중 특이사항 등을 시간대별 스크립트로 작성해 편집을 돕기 위함이지요.

대학생 때 방송영상학을 전공한 저는 자연스럽게 청년선교회 방송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1년 4월에 본당 방송실 봉사를 시작해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그해 6월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특별 은사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실에서 집회 현장의 열기를 생생히 느끼며, 아주 작은 도움으로나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 제 마음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지요.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며 토요일을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무감각하게 교회만 오갔던 신앙을 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단결에서 설교자를 가까이 뵈고 스크립트를 적어야 하니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만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었지요.

사실 너무나 작은 역할이기에 민망하지만, 저는 어딘가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교회에 보탬이 되고자 달려갈 것입니다.

“언어로 전하는 주님의 사랑, 나의 교화이기 때문입니다”



**02 김형준 형제**  
(4청년선교회)

저는 약 5년 전부터 영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야예배나 부활절 등 공연 통역과 수련회, 창립 등 교회의 연간 주요행사 시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손님들의 수행을 돕고 있지요.

해외 손님들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할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통역을 하기 전 “주님, 오늘도 제 목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한번은 다니엘철야 기도회 중 안수기도를 잠시 통역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 제 통역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해외 성도님의 치마폭으로 푹푹 떨어지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나의 교화’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금도 통역 봉사를 계속하며 더욱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요.

제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따뜻하게 가족처럼 맞아주시는 선교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 감사가 샘솟아요”



**03 이형경 집사**  
(가나안선교회)

저는 GCN방송에서 나레이션 더빙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는데, 이 사실을 안 만민매거진의 제의를 받고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째가 되었네요. 지금은 어느덧 매주 금요철야예배 때 상영되는 만민매거진의 고정 나레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순간에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칫 감기라도 걸리면 녹음할 때 너무 답답하기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요. 이뿐 아니라 삶 속에 감사가 더 많아졌고,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 주실 때는 힘이 불끈 납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성령체험을 했고, X자형 다리로 인한 무릎 통증과 목 디스크 증상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남김없이 쓰임 받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미디어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성결교회 전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